

조선말사랑 '예지아컵' 성인 사랑송경연 시상식 천진서



전국애심여성포럼에서 주최하고 연변사랑송협회와 전국애심여성포럼에 후원하는 2024년 제6회 조선말사랑 '예지아컵' 중국조선족 성인 사랑송경연 시상식이 2024년 9월 7일에 천진시 만리천진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예지아컵' 성인사랑송대회에는 광

동성, 상해, 북경, 하북성, 천진, 료녕성, 흑룡강성, 길림성 등 전국 각지, 그리고 한국, 일본에 있는 조선족 사랑송애호가 45명이 참가하여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며 고향사랑, 가족사랑을 노래한 시를 격조높이 낭송하였다.

치열한 경쟁과 공정한 엄선을 통하여 사려향(연길)이 대상을, 김유진(광둥성 동관), 마춘화(광둥성 심수), 라춘의(천진)가 금상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김하영(연길), 김화영(천진), 장춘희(광둥성 동관), 김련옥(하북성 연교) 등 4명이 은상을, 김영희(흑룡강성 녘안), 송미선(천진), 박계령

(심양), 김경자(하북성 연교), 라인숙(하북성 연교) 등 6명이 동상을, 리광옥(할빈), 최해옥(한국), 김수복(상해), 최금령(광주) 등 12명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전국애심여성포럼 발기자이며 명예회장인 리란은 추사에서 사랑송은 민족문화의 정화를 전승하는 훌륭한 문화활동이라면서 '예지아컵' 사랑송경연이 우리 언어문화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으므로 계속 잘해나갈 것을 부탁하였다. '예지아컵' 운영위원장 전명숙은 6년 동안 개최해 온 '예지아컵' 성과를 총화하면서 그동안 400여명의 사랑송애호가들이 경연에 참가하여 180여명이 수상하는 영광을 지니고 80여명이 협회의 랑송가로 사랑송 선두에서 활약하면서 사회에 긍정에너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변사랑송협회 송미자 회장은 심사총회에서 해마다 제고되는 사랑송 수준에 대해 평가하면서 올해 사랑송 경연은 시감이 살아있는 랑송이 돋보였고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시의 선택이 여느때보다 돋보였다고 밝혔다. 전국애심여성포럼은 사랑송문화의 전승 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기리어 송미자 회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 김파기자, 송미자

[전망대]

강자가 칼을 뽑으면 약자는 방패로 막는다



제 22 라운드 연변팀 VS 대련영북 경기에서 로난선수가 슛을 날리고 있다. / 김파기자

수비수 출신의 이기형 감독이 이끄는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9월 15일 19시에 심양올림픽 체육중심에서 공격수 출신의 리금우 감독이 지휘하는 료녕철인(이하 '료녕팀')과 2024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23라운드 경기를 펼치게 된다.

두 팀의 갑급리그 상호 전적을 살펴보면 1승 1무 1패로 지난해에는 각각 홈장에서 2:0으로 상대를 제압했고 올해 4월 28일에는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1:1로 비긴 바 있다. 그러나 제 16라운드부터 리금우 감독이 지휘를 맡은 후 료녕팀은 중경동량룡, 광서평과하로, 남경도시, 대련영북과 같은 강팀들을 연이어 꺾고 4승 3무라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며 14위로부터 9위로 발돋움한, 누구도 감히 알 수 없는 팀으로 변했다.

올 시즌 료녕팀은 연변팀과 마찬가지로 감독을 두차례 교체했다. 고명기 감독은 5라운드까지 지휘하였는데 1승 2무 2패였고 순위 감독은 6라운드부터 15라운드까지 지휘하였는데 2승 3무 5패를 기록하였다.

리금우 감독 체제에서 료녕팀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여름철 이적시장을 리용, 8명의 선수를 영입하여 리금우형 공격축구 체계를 구축하여 갑급리그 후반단계 경기에서 표현이 가장 출중한 팀으로 거듭났다. 지난 제 22라운드 경기에서 리그 부반장 강서려산에 1:1 무승부를 거두었지만 '리그 4위를 쟁취한다'는 료녕팀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 명년 슈퍼리그 자격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후보자격으로 슈퍼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위치를 노린 것이다.

연변팀은 김봉길 감독이 4승 4무 4패를 기록하고 이번 코파드라도 감독은 0승 2무 4패를 기록한 바 있다. 이기형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 어려운 상황에서 무승의 늪에서 탈출하는 패거리를 이루고 4점

경기를 1승 3무로 갑급권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위치에 올려 많은 축구팬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지난 홈장에서 비록 료녕팀과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그때의 료녕팀 실력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특히 나이지리아 용병 싸빌 무싸(24번)는 신장 195センチ미터의 수비선 핵심이고 브라질 용병 레앙 카로스(15번)와 일본 용병 구니모토 다카히로(22번, 本宜裕), 중국 대륙 귀화선수 안의은(25번)은 중앙선과 공격선에서 다양한 변화로 상대를 괴롭히며 젊은 선수들이 전덕오(36번, 22세), 전군호(30번, 19세), 장가명(37번, 17세), 제자함(2번, 21세) 등이 양건(10번), 고해성(19번), 림룡창(5번) 등 로장들의 령술하에 기동명활하게 움직여 수비, 조직, 공격 3선에서 허점을 찾기도 했다.

료녕팀은 중경동량룡과 광서평 가하로를 5-4-1 진영으로 격파했고 남경도시와 대련영북을 4-2-3-1 진영으로 꺾었는데 수비선에 령력을 집중하고 패속반격, 전면진공 전술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였다는 점은 연변팀이 심본 경계할 바이다.

료녕팀에 비해 연변팀은 선수층이 얇고 부상 선수가 많아 주력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엄청 크다. 이기형 감독의 손에 쥐어진 패폭이 얼마 없는 데다 일부 선수들의 발휘가 경기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다.

비록 원정에서 강팀을 만나지만 연변팀 선수들이 수비 우선을 기본으로 하는 이기형 감독의 전술을 잘 소화하고 철저한 준비로 강팀에 강한 연변팀의 본색을 남김 없이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 김태국기자

'9.3' 씨름장을 지켜선 날리리응원단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의 날 '9.3'명절 치고 씨름경기가 없는 명절은 상상할 수 없다. 그만큼 우리 조선족들은 씨름경기를 즐긴다. 그 즐거움 속에는 긴장과 탄성과 함성이 있고 춤 노래도 북장단도 함께 어우러지며 환락의 도가니로 들끓는다.

올 '9.3'명절에도 연변조선족자치주 제 12회 민족시 씨름경기가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어김없이 펼쳐진 가운데 개막식 공연에 연변아리랑생태문화협회 회원들이 자진하여 나섰다. 이 공연단을 이끌고 있는 안길자가수와 올 7월 중국대중음악협회 경전노래대전에서 <엄마의 진달래>를 불러 은상을 수상한 김순자 등 가수들이 <이 좋은 고장에서>와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등 노래를 불러 대회장 분위기를 화끈하게 끌어올렸다.

노래만 있는 문예공연은 없다. 그들은 또 수준급의 손북무용 <날리리>(안무 조련화)를 흥겹고 정채롭게 펼쳤다. 이 무용을 준비하고 공연하기까지 7일 만이다. 전문무용단체도 아니고 자원봉사자 나선 60대 중반의 무용애호가 12명, 그들 속에는 항암치료 중인 환자도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훈련에 들어선 그들은 긴장한 전투를 치르는 전사가 되었다. 연변중경예술관의 김승환



씨름장 공연무대에 오른 회원 일동

관장이 갑작스런 그들의 수요에 맞춰 연습장을 어렵게 조절해주며 무용 연습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베풀었다. 고마움과 감사함을 앞세워 넉넉한 공간에서 연습에 열중해 온 그들은 까다로운 몸동작도 무난히 익히며 드디어 작품을 완성하였다. 씨름장의 열기가 한창 달아오를 때 그들이 펼친 무용 <날리리> 또한 고조를 이루었다. 우렁찬 박수소리와 함께 환호성이 터졌다.

그들 공연과 혼연일체를 이루며 씨름장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달구어

간 또 다른 악단이 있었다. 70세를 훨씬 넘어서 최영 단장이 지휘까지 맡아가며 이끄는 갈매기관악단이다. 이 악단의 40여명 단원들은 민족씨름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연변성주청소년체육학교 리설봉 교장이 주관하는 씨름경기장으로 10년째 변함없이 따라섬어 응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변아리랑생태문화협회 안인옥 회장은 "우리의 민족씨름이 오늘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씨름을 사랑하고 씨름운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

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안받침 되어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씨름장 무대공연에 오히려 성원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지하였다.

훈련중 어떤 단원들은 강훈련에 지쳐 무대에서 쓰러지기도 하였지만 끝까지 버텼고 무대위를 이기기 위해서로 수박을 산다, 음료를 산다 하면서 주머니를 털었다. 김순복회원 또한 자신의 자원봉사를 응원하며 지인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경비에 보태스라고 내놓았고 전옥련회원 역시 식구들 몰래 간직하고 있던 비자금을 아낌없이 내밀었다.

연변아리랑생태문화협회에서는 평소에도 혁명렬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유적지 탐방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선렬들의 유가족 방면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사회공익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혁명선열들이 피흘려 목숨으로 바뀐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들의 유지를 받들어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에 헌신과 기여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원들은 이번 행사에서 사랑과 우애, 헌신과 봉사로 하나가 뭉쳐 하나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인옥 회장은 궁지에 넘쳐 말했다.

/ 김청수

장백산 총 257 호 2024 년 제 5 호

권두언
임 백 문학과 올림픽

장백산 특별조명
전정환 백박골에서 봄 오는 소리가 들려온다 (수필, 외 4편)
윤운진 궁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진한 감동과 여운 (평론)
전정환 내 식의 고백, 내 식의 이실직고 (작가노트)

장백산 특집 - 문화자신감에 관하여
김관용 문화자신 만필 (칼럼)

장편기획연재
박문봉 중국공산주의자들과 손잡고 공산당조직 설립에 참여한 김만경 (인물전기)
리홍규 붉은 천 한조각 (장편소설, 연재 2)
리승국 혈의 무血之舞 (장편소설, 연재 5)

중단편소설
현청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단편소설)
작 도 태풍을 건느는 밤 (단편소설)
문설근 파란 대문 (단편소설)

김영해 소설코너
김영해 노크하십시오? (단편소설)

수 필
주향숙 고요를 위하여 (외 2편)
배 흥 주향숙의 수필에 나타난 삶의 고민과 철학적 사고 (평론)

홍길남 소래밥
윤 슬 고향에도 바람이 분다
류일복 재할용 인생
한 나 여유미
봄보미 엄마의 화장
차설매 봄미나리

시
김인덕 풀 (외 5수)
강선화 노오란 령혼의 찬가 (외 2수)
립금산 미녀 앞에 굳어본다 (외 2수)
윤청남 령행 (외 1수)
조혜선 빈자리
리병군 비 오는 날 방구석
한경애 따리

번역작품
양사방 (리별 울림) 아싸마의 등불 (단편소설)

장백산 루계 257
칼라 4 김광영 사진 & 한영남 시
달은 일어서고 싶다 (사진과 시)
칼라 9 임 백 문학과 올림픽 (권두언 원문)
장 광 표지그림

《长白山》2024年第五期电子版已上线!

《장백산》2024년 제5호 전자잡지 출시!



支持整市购买或单篇购买。

→ 点击图片购买专栏, 或在专栏目录中选择您想阅读的文章点击购买内容, 支持您喜欢的作者!

→ 购买后, 可添加至我的收藏, 以便随时查阅。



点击右上角... → 收藏